

우리가 처한 주거지의 현실과 도시 공간의 현실

- 국내의 모든 집들은 법률적으로 몇 가지 카테고리로 규정되어 있음

집의 유형

- 기본적인 잣대는 소유권
- : , 분양할 수 없는 주택
- : 집 전체를 개인의 명의로 법률적 문서에 소유권이 잡혀 있음

집의 유형— 다가구 주택

- , 독립적인 주거 생활 보장, 분양은 안되고 임대만 가능
- : 독립적인 주거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모든 시설들이 따로 구비되어 있지 않은 주택 / < > 고시원

공관

- 국가 공무원으로 임지에 부임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든 거주 시설
- < > , 학교 사옥

공동 주택

- (, ,) | 일정 부분이나 전부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
- < > 아파트
 - 등기부 등본: 법적인 소유 권리가 인정되는 문서
- 단독 주택의 경우 토지의 면적과 소유자가 명시되어 있으나 아파트의 경우 단지 전체 면적을 세대수로 나눈 만큼의 지분을 소유한다고 명시
 - 단독 주택은 자기 소유의 토지 내에서 어떤 행위를 해도 상관이 없지만, 아파트의 경우 벽을 제외한 내부의 공간만이 자신의 소유이고 벽을 포함한 나머지 부분들은 공동의 소유이므로 함부로 손댈 수 없음. . 일본의 경우 그러한 행위를 하기 이틀 전에 고지의 의무가 있음

- 공동 주택은 각 유니트를 따로 떼어내어 거래할 수 있음

• 유형

- : 5 ㄴ 이상의 공동 주택
- : 4 660m² 200) 이상인 건물
- : 4 660m² 이하인 건물
- 이상의 유형 이외에는 법률적으로 효력 없는 용어들